

미국 · 일본 특허분쟁 정보 “한눈에”

미국과 일본의 최근 특허분쟁을 심층 분석한 <국제 특허분쟁 지도>와 10대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국제 특허동향을 분석한 <분쟁대비 특허맵>이 공개된다.

특허청은 11월 22-24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2006 특허분쟁 지도 및 특허맵 작성 최종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1월20일 발표했다.

공개하는 미국 특허분쟁 지도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특허소송 전담 고등법원인 미국연방 항소법원에 제기된 400여건의 모든 특허소송을 심층 분석했으며, 일본 특허분쟁 지도는 최근 10년간 일본의 특허소송 사건을 심층 분석해 일본의 특허분쟁 현황 및 특성을 기술·기업별로 정리했다.

분쟁대비 특허맵에서는 분쟁이 예상되는 각종 기술분야에 대해 주요 선진국의 특허동향 및 특허분쟁 현황, 특허분쟁에 대비한 기술개발 전략 등을 제시했다.

10개 기술분야는 ▲자동차용 블랙박스 ▲텔레매틱스 단말기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전계 방출 디스플레이 ▲AMOLED LTPS 기술 ▲반도체 평탄화 기술(CMP) ▲서방형 약물 전달시스템 ▲나노 의약품 개발기술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항비만 기능성 식품소재 및 제품 등이다.

특허청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해마다 24개 기술분야에 대해 최신 특허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제공해 왔으며, 2005년부터는 특허분쟁에 직접 대응할 수 있게 특허분쟁 지도와 분쟁대비 특허맵을 작성·보급하고 있다.

특허청은 발표회와 함께 주요 결과물을 특허맵 홈페이지(www.patentmap.or.kr)를 통해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하며 발표회 참가자들에게는 분쟁지도와 특허맵, 특허분쟁 용어사전까지 기증한다.

<화학저널 2006/11/20>